

조합원과의 소통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활기찬 광주·호남지점!



색다른 모습이다.

“아자! 아자! 화이팅!!” 힘찬 구호와 함께 하이파이브로 하루를 시작하는 광주·호남지점의 아침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활기 가득한 모습이었다. 아침인사를 나누며, 두 손을 맞부딪치는 하이파이브는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광주호남지점의 문화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그래서일까, 조합원사를 맞이하는 직원들의 표정이 무척 밝다.

광주·호남지점의 가장 중요한 모토도 역시 “조합원과의 소통”이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오치중 지점장은 조합원사가 조합이용에 불편을 느낀 민원이나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전화 등을 통해 수시로 경과를 알리

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조합 이미지를 재고한다는 각오로 조회 때마다 직원들에게 이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설명하고 수시로 통화함으로써 조합원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아침조회 시간에 실천 정도를 평가하고 지점의 현안사항이나 본부 지시사항 등을 자유롭게 토론했다.

광주·호남지점만의 장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오 지점장은 직원들이 금융인으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잘 되어있다는 것을 꼽았다.

조합원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각종 보증, 조합경쟁력 확보 및 조합원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한 공제사업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에 충실히 임

하는 마인드가 잘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금융인으로서의 마음자세를 지니고 있고, 동료 간의 화합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모습도 또 다른 자랑거리로 꼽았다.

광주·호남지점 소속 직원들은 조합 내에서 친화력이나 업무능력에서 직원들 사이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합원사와의 소통이 반영된 듯 전년대비 보증금액은 9.4%, 공제실적은 6% 상승했으며, 조합원에 대한 친밀도에 대해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금융인으로서 기본을 강조하는 광주·호남지점. 아침조회가 끝날 무렵 울려 퍼지던 “아자! 아자! 화이팅!!” 구호처럼 언제나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줄 왼쪽부터 박현우과장, 안동유 부지점장, 심상하과장
앞줄 왼쪽부터 김윤선대리, 오치중 지점장, 전재형주임

조합은 항상 조합원을 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합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호남지점 및 해당 영업소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설명 및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연락처 : 광주·호남지점(062-514-0790), 전주영업소(063-262-8934),
순천영업소(061-724-5521), 제주영업소(064-725-2161)